

華嚴書院 山仰會報



文正公 不祧廟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宗家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도학, 절의, 문장을 겸비한 大儒

河西 金麟厚

심 우 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출처

선생은 동국 18현 중의 한분으로 ‘호남 남쪽에는 김인후(1510~1560), 북쪽에는 이황(1499~1576), 영남에는 이황(1501~1570), 서울에는 이이(1536~1584)가 버티고 있다’는 기록처럼 학덕이 크고 넓었다. 학자 군주인 조선의 정조는 “우리나라가 선 이후로 앞장서서 성리를 천명하고 도의 근원을 훤히 안 사람은 문정공(하서의 시호) 한 사람뿐이다.”고 높이 평가하고 그를 문묘에 배향하였다.

19세에 과거에 응시해 장원이 된 후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이황 등과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종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신진 사림 출신의 조광조를 기용했고, 조광조는 훈구 세력을 철저히 배제한 급진적 도학정치를 실현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훈구 세력의 모함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의 정치 개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조광조 등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거론을 못하던 시기에 하서는 왕에게 군자의 도를 진언했다.

“예로부터 선치(善治)를 하는 군주는 어진 인

재를 가까이 하며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어진 인재를 가깝게 하면 임금의 도와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면 사람이 지킬 뉘엿한 윤리가 밝혀져 세상을 두터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의 기묘사화는 죄가 아니심을 밝히시고 날로 두려운 마음으로 수양하사 정의와 악을 잘 가려서 사회 기강을 세우시옵소서.”

중종이 이 상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하서는 사직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고향인 장성으로 낙향하여서는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력을 하였다. 선생은 또한 ‘내가 죽으면 을사년 이후의 관작은 쓰지 말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다.

호남 도학의 진정한 지주

선생의 학문적 계통과 경향은 기묘사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정주학(程朱學)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통 주자학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 성리학이 한참 무르익은 16세기 대표적 유학자로 이(理)와 기(氣)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태극(太極)에 관한 이론에도

깊어 천명도(天命圖)를 완성한 도학자였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과정을 중시하는 김안국의 온건한 학풍을 이어받은 것으로 조광조의 과격과 급진 그리고 고집과 배타 등의 약점을 보완하였고 유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였다.

선생은 단순한 성리학자가 아니라 실천 수양에 힘쓴 도학자로 <태극도설>과 <서명>을 수천 번 읽고, ‘태극은 덕성의 근본이요 서명은 학문의 강기니 어느 한쪽도 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선생은 불교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학문적으로 배타보다는 포괄, 분석보다는 회통을 중시했고 모든 사물을 같은 생명 차원에서 교감하였다.

선비의 대절을 지키다

선생의 출처에 대해 후세의 많은 선비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율곡은 중종 말기에서 명종 중종기까지의 기간에 ‘선생만이 출처가 분명하였다’고 특서했는데, 절의를 바탕으로 하는 출처의식은 사승과 관계가 깊다. 선생은 김안국(金安國)의 제자로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의 조선 성리학 도통(道統)을 이어받았다. 성정(性情)이 강개하고 학덕이 돈후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난정을 피해 고향에 칩거하면서 집안 다스리기를 나라 다스리듯 했던 선생은 지식과 행동 내면과 외면의 수양을 다 같이 중시하였다. 그래서 인물을 평가함에 인색하기 짝이 없던 율곡도 선생을 가리켜 “맑은 물에 뜬 연꽃이요, 화창한 봄바람에 비 온 뒤의 달(清水芙蓉 光風霽月)”이라 높게 평가하였다. 인종은 직접 그린 묵죽

도를 선생에게 하사하고 시를 쓰게 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무릇 대나무는 절의의 상징이다. 절의와 충절을 의미한 묵죽도에는 사제의 연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이리 정미(精微)하니 비위를 친구 삼은 정갈한 뜻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비로소 성스런 혼이 조화를 기다리심을 보았나니 온 천지가 어찌 어김이 있겠습니까.

인종 사후 선생은 곧바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종에 대한 절의를 지켜 산림에 은둔한 채 시작(詩作)과 학문으로 여생을 보냈다. 특히 선생이 조광조를 죽인 중종에게 기묘사화의 잘못됨을 말하고 희생자들의 신원(伸冤)을 주청한 것은 도통적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의 절의 정신은 호남 사림의 의리 정신과 자긍심의 뿌리가 되었다.

조선중기 호남 문단의 거장

도학적 측면에서 보다 오히려 선생은 다정다감한 시인이었다. 호남가단의 핵심적 거점이었던 면앙정과 소쇄원 등을 찾아가 이곳을 드나들던 기대승, 고정명, 송인수, 임억령, 정철 등과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다. 그의 시풍과 풍류는 제자인 정철에게 이어져 강호가도(江湖歌道)의 국문시가가 꽃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선생의 시는 기본적으로 도학자로서 온유 돈후한 시풍을 바탕으로 절제와 조화의미를 갖춘 시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좌절과 불만을 광달하게

분출하여 한시 일반에서 감지하기 힘든 유별난 흥취의 미가 담긴 시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인심(人心)의 교화를 위해 문장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심성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일상의 도를 추구한 선생의 고문(古文)은 의도적으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선생은 행(行)·초(草) 등 글씨에도 뛰어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퇴계 선생에게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河西學의 가치와 의미

선생이 살았던 16세기는 사상사의 대세가 사림과 쪽으로 굳혀져 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유학은 주자학을 내면화하면서 더욱 심화된 이른바 도학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선생은 주자학을 훨씬 더 내면화함으로써 의식과 생활을 일치시켜 갔으며 미의식 역시 그에 부합시켜 갔다. 담박과 절제와 단정의 정신 세계는 자연을 노래한 시에서 그 흥취가 잘 드러난다.

선생은 성인(聖人)이 되어야 한다는 유교의 기본 이념을 추구하여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두면

서 유학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공(公)을 앞세우고 사(私)를 뒤로 하며, 의(義)를 앞세우고 이(利)를 멀리하였다. 선생이 남긴 글에는 상하의 소통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공(公)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다.

선생의 자연 인식은 안빈낙도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지향했으니 다음의 시조는 그 증좌가 된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山水間)에 나도 절로
그중에 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하리라.

선생은 이 시에서 자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간 중심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시각을 드러낸다. 천리(天理)의 유행을 관조하고 체현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자연과의 조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세기적 명제가 되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가 담긴 선생의 자연 관념은 현대인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치유하는 담론으로써 여전히 효율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통치철학

백승중 · 박현모 · 한명기 · 신병주 · 허동현 지음

통치철학 빈곤의 시대
위민(蔭民)에 매진하여 지치(至治)를 이루려 한
조선의 통치철학을 통해 바른 통치의 길을 묻다

푸른역사

河西선생의 고결한 사상과 삶은 현대사회의 이상적 인간상

최 일 범(성균관대 한국철학과 교수)

이 책은 2010년 하서 김인후 선생 탄생 5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던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맞아 도학사상(道學思想)의 본령(本領)과 고결한 삶의 자취를 국제적으로 조명, 선양(宣揚)해야 한다는 제현(諸賢)의 뜻이 모아져,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장성군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 다소 늦게나마 이를 정리하여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서 김인후 선생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의 개최와 이 책의 간행은 당시 필암서원 원장이셨던 고(故) 도원 류승국 선생님의 뜻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사상과 삶의 자취를 학술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단지 전통 사상을 계승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 문명사적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하서 선생이 도학자로서, 기묘(己卯) 명현(名賢)의 신원(伸冤)을 이루어 국시(國

是)를 바로잡고 도통(道統)을 이었을 뿐 아니라, 고결하기 그지없는 출처(出處)와 문장은 입덕(立德), 입공(立功), 입언(立言)의 삼불후(三不朽)에 부합한다고 존송하였습니다. 하서 선생의 성리학 사상은 음양합덕(陰陽合德)과 이기(理氣)의 불잡(不雜)·불리(不離)인 이기지묘(理氣之妙)를 통찰한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하였으며,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의 어제사제문(御製賜祭文)에서 “문성공의 사철 이론은 하서공이 먼저 깨달은 것(文成四七 蓋公先覺)”이라 한 것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즉 율곡 사칠론(四端七情論)의 대체(大體)는 하서가 그 본령을 개창(開創)하였고 율곡이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서 선생의 출처(出處)가 조선 역사에서 지행합일의 모범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에 따라 하서와 율곡의 도학 사상이 조선조 후기 민족사 전개에 있어 양대 학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서세동점(西勢東漸)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 자주·의식적 춘추정신으로 발전하여 척사위정(斥邪衛正)의 독립 열사를 배

출하였으니, 송시열(1607~1689)로부터 이항로(李恒老, 1792~1868), 김평묵(金平默), 유중교(柳重敎), 최익현(崔益鉉), 유인석(柳麟錫), 고흥선(高興善), 김구(金九), 안중근(安重根) 등으로 이어지는 독립 애국열사의 맥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자강을 위한 실학파로 발전되었으니, 그 대표를 말하면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유형원(柳馨遠, 1622~1673), 이익(李瀾, 1681~1763)으로 계승되어 발전한 것입니다. 즉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의리학과와 실학과의 근원을 소급하면 하서와 율곡의 성리 철학에서 연유한 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원 선생님의 하서 사상과 출처에 대한 의미 탐색은 조선 전통 사회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문명사에 일대 전환을 이루어야 할 오늘날, 하서 선생의 사상과 삶은 성숙한 인간,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크게 공헌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은 크게 진보하였으나 인간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인간은 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인 삼재 중에 인간이 상실된 것이 현대사회의 일대 병리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문명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화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피안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인간 속에 내재하여 성신(聖神), 불성(佛性), 천명(天命)이 역사(役事)함으로써 신인상화(神人相和)하고, 영육완전(靈肉完全)한 인간관의 창출이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에는 정신과 물질의 중화(中和)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 인간상이 요청됩니다.

하서 선생의 고결한 사상과 삶의 궤적은 바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여기에 도원 선생님이 하서 선생을 존송하고 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도원 선생님은 하서 선생을 단지 전통 사회의 도학자로서 기리고 추모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서 선생의 사상과 인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명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정신을 본받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책의 간행은 하서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기리는 학술 행사의 결정입니다. 도원 류승국 선생님은 필암서원 원장으로서 직접 기획하신 학술 행사의 결정을 보지 못하시고 안타깝게도 지난 2월 노환으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 간행사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직접 쓰셨어야 하지만 만부득이 불초한 제가 선생님의 뜻을 헤아려 이렇게 대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제현들께 고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시간의 부족으로 이 책의 편집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끝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탄생 500주년 학술 행사를 위해 노력하신 당시 필암서원의 김진웅 도유사를 비롯한 여러분들, 장성군청과 장성문화원의 관계자 여러분들, 울산 김씨 대종회, 그리고 국내외에서 참석해주신 석학 여러분들, 학술회의의 진행에 참여해준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 연구소와 한국철학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9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교수 최일범 삼가 올립니다.

河西 金麟厚의 誠敬思想

이 애 희(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1. 머리말

조선조의 건국 이념으로 출발한 性理學이 철학적인 면모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한국적인 독창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초의 性理學者인 花潭 徐敬德(1489~1546)과 晦齋 李彦迪(1491~1553)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주제를 제시하면서 논쟁을 풀어나감으로써 철학적인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은 退溪 李滉(1501~1570)과 高峰 奇大升(1527~1571) 이 두 철학자 간의 사단 칠정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고에서 고찰하게 될 河西 金麟厚(1510~1560)의 誠敬論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성리학이 철학적인 심화의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시기인 16세기를 살면서 성리학적인 가치를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아 객관적인 사회질 서, 특히 도덕 질서에 부합된 삶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하서의 인간완성을 향한 실천 이론이다.

현존하는 그의 문집과 여타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그의 理氣와 心性에 관한 견해는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정립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의 성리학이 退溪와 高峰의 8년 간의 논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발전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1558~1566)의 초반에 타계하였고(1560) 그의 학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저작들이 逸失되어, 그 단편적인 내용만이 남아 있는 관계로 그의 성리학적인 사상의 맥락을 추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退溪와 함께 四端七情의 논쟁을 발단시킨 高峰이 자신의 四端·七情에 관한 입장을 밝힐 때 河西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성리학의 발전에 미친 河西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문집을 분석해 보면 그의 性理學者적인 면모가 당시의 어느 성리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가 비록 성리학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언급한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는 해도 그의 문집에 수록된 몇 편의 글들 예컨대 「復性賦」 「與盧寡悔論夙興夜寐箴解別紙」 등과 그의 1598首에 달하는 도학적인 정신 세계를 읊은 시들은 그의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性理說 가운데 수양을 위한 이론인 誠敬說은 자신의 道學者的인 인간됨을 잘 반영해

주는 만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하서의 규범론이라고 할 수 있는 誠敬觀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그의 철학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리학적인 이론을 학문관·세계관·인간관·성경설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 誠敬의 經學史的 意味

河西의 誠·敬에 관한 고찰에 앞서서 유학이 지향하는 규범적 자아 실현의 방안이라 할 수 있는 誠·敬에 관한 이론은 원시 유학의 여러 경전과 宋代 성리학자들의 철학 체계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학은 그 학문의 목표를 천인합일의 구현에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지식의 탐구를 목표로 하는 현대과학과는 眞理觀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유학의 이러한 학문관(眞理觀)은 이미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원시유학의 단계에서 정립되었다. 맹자의 “학문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심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일 뿐이다.”¹⁾라는 언급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잃어버린 본심은 하늘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심에 담겨 있는 그 원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길을 유학은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한 목표가 실현될 때 하늘의 원리와 인간의 내심의 본성이 일치되는 경지 곧 천인합일의 경지가 실현된다는 것이고, 유학은 그러한 경지를 실현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들은 일찍부터 하늘과 인간의 본질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한 관심의 결과로서 정립된 내용이 바로 유학의 修己安人과 內聖外王의 道라는 이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학의 이상은 유학의 여러 經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周易』과 『大學』 및 『中庸』은 그러한 원리들을 가장 폭넓게 함축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유학의 이상적인 원리들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자에 의해서 정립된 仁이라든가 맹자의 仁義 개념은 후대의 모든 유학자들이 중요시해온 개념이다. 그런데 이들 개념은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제시된 원만한 인간 관계와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되는 개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 개인의 자기완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학을 비롯한 모든 규범철학이다.

유학이 제시하는 그러한 개인의 자기완성에 필요한 규범의 원리가 바로 『周易』과 『中庸』 그리고 『大學』에서 언급되는 誠과 敬이라고 할 수 있다.

原始 儒學은 이 두 개념을 함께 중요시했으나 宋代 성리학에서는 敬을 더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의 성리학자 중 퇴계는 敬에 치중하였고 율곡은 誠을 더 중요시했다. 그러나 誠敬의 개념을 별개로 보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誠敬의 합성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²⁾ 아울러 “誠敬을 합쳐서 사용하면 가장 高度의 敬이 된다.”³⁾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렇기

1) 『孟子』, 告子上篇 11章, “學問無他也 求其放心而已矣”

2) 『二程全書』 卷2, 「遺書」, “學者須先識仁 仁者 渾然與物同體 義禮智信 皆仁也 識得此理 以敬存之而已”

3) 張其昀, 1981, 「孔子學說的現代的意義」 『華崗校友會譯』, 螢雪出版社, 117쪽.

때문에 宋代의 성리학자들의 誠과 敬에 관한 사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朱熹는 ‘敬은 收斂·畏懼·不縱放이고, 誠은 朴直·懿實·不欺誑이다.’라고 정의하였다.⁴⁾ 즉 敬은 항상 정성을 다지고 삼가며 警戒하여 放縱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誠은 마음이 소박하고 곧아서 정성되어서 거짓됨이 없는 것을 말한다. 결국 誠은 ‘거짓됨이 없는 것이고’, 敬은 ‘망자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朱子是 ‘誠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어 속이지 않는 것이고, 敬은 근신하고 두려워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朱熹는 ‘誠은 實일 뿐이며, 敬은 畏일 뿐이다.’⁵⁾고 하였다. 즉 誠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어 속이지 않는 것이고, 敬은 근신하고 두려워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朱熹는 ‘誠은 實일 뿐이며, 敬은 畏일 뿐이다.’⁶⁾라고 했다. 결국 진실하지 못하여 속임이 있으면 誠이 되지 못하고, 게을러서 함부로 하면 敬이 되지 못한다. 이점이 誠과 敬의 구별이다.’⁷⁾라고 한다. 즉 망령되고 거짓되면 성실할 수 없고 게으르고 放恣하면 敬畏할 수 없다. 따라서 敬의 극치가 誠이고, 誠은 敬이 투철한 것이다.

결국 朱熹의 이러한 생각은 天道(誠禮)로서의 誠은 人道(誠之)의 誠이 지향하는 목표이고, 인

간은 誠之라는 노력을 통해서 天道(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인간의 노력인 誠之를 敬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주희의 생각은 程伊川이 周易의 ‘閑邪存其誠’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誠을 敬으로 해석하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伊川은 ‘敬은 邪念을 막는 방법이다. 邪念을 막으면 誠을 보존할 수 있다. 이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으나 별개의 일이 아니다. 사념을 막으면 저절로 誠이 되는 것이다.’⁹⁾라고 하였다. 즉 誠을 보존하려면 사념을 막아야 하며, 사념을 막는 일이 바로 敬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敬은 誠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또한 程伊川은 敬을 主一無適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主一은 敬을 말하며, 이 경우 一은 誠을 말하고, 主란 뜻을 두는 것이다.’¹⁰⁾라고 해석했다 즉 敬이란 誠(一)에 뜻을 둔다는 의미라는 말이다.¹¹⁾ 이와 같이 정이천은 경을 ‘主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은 경의 완성 내지는 실현해야 할 목표라고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경의 목표가 되고, 경은 성을 실현하는 방법 내지 과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이천은 “성은 通體가 되고 경은 공용이 된다. 경하면 내심이 저절로 곧게 된다. 성은 내외를 통털은 도이기 때문에 만물이 流行되며, 그렇기 때문에 義로써 밖을 바르게 할 수

4) 上同, 卷37, 性理9 誠. “敬只箇收斂畏懼不縱放, 誠是箇朴直懿實不欺誑”

5) 上同. “誠是不欺安底意思 敬是不放肆底意思”

6) 『朱子語類』 卷9, 性理3. “誠只是一箇實 敬只是一箇畏”

7) 『性理大全』 卷37, 性理9 誠. “妄誕欺誑爲不誠, 怠慢放肆爲不敬 此誠敬之別”

8) 『周易』, 乾卦·文言, 九二.

9) 『二程全書』 卷19. “敬是閑邪五道 閑邪存其誠 雖是兩事 然亦是一事 閑邪限誠自存矣”

10) 上揭書, 卷27, 遺書24. “主一者謂之敬 一者謂之誠 主則有意在”

11) 『二程全書』 卷31, 「外書」, “誠爲通體 敬爲用 敬則內自直 誠合內外之道 則萬物流形 故義以方外”

있다.”라고 말한다. 誠은 統體이며, 內直의 敬과 方外의 義는 用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셋을 體用關係로 해석할 경우 誠體敬用, 敬體義用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誠하면 敬하지 않음이 없고, 아직 성에 이르지 못했으면 경한 연후에 성해진다.’¹²⁾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성을 정보다 우위에 두고 성인은 성을 쉽게 실현하지만 범인은 경이라는 노력이 뒤따라야 그것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성은 고도의 경 혹은 경의 목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실현되면 경이 필요치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경이 요청되는 것이다.

朱熹는 그러한 생각에서 ‘먼저 경한 다음에 성을 기대할 수 있다.’¹³⁾고 말한다. 확실히 성과 경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성은 정보다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은 천도에서 터득된 개념이고, 敬은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자의 문인 南軒 張氏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길 ‘성은 천도요, 경은 인사의 근본이다. 敬道가 이루어진 것이 성이요 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學은 始終으로 한다.’¹⁴⁾고 하였다.

주희의 다른 무인 眞德秀(1178~1235)도 마찬가지로 誠敬關係를 설명한다. 그는 ‘학자의 노력은 모름지기 一에 主力해야 한다. 이 경우 主

라는 것은 끊임없이 一을 지켜서 뜻을 변치 않는 것이다. 그 함양이 충분히 이루어져 우리 마음의 본체가 담연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두 가지 생각이나 혼잡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主) 않아도 저절로 一이 된다. 노력하지(主) 않아도 스스로 一이 되는 것이 바로 誠이다. 敬은 인사의 근본이요 학자가 힘써야 할 핵심이다. 성에 이르면 天道에 달한다. 이 점이 바로 誠敬의 차이인 것이다.’¹⁵⁾라고 말한다.

경은 성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핵심이고, 그 경은 또 성에 뜻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主一)이다. 그러한 노력이 충분히 결실을 거두면(涵養既熟) 경하는 노력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程朱學에서는 경을 정보다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는 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이라는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조선의 16세기 성리학자들에게서 보다 철저히 합리화된다. 특히 誠敬은 16세기의 도덕철학적 행동주의자 하서 김인후의 실천 유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3. 河西 誠敬思想의 根幹

1) 學問觀

유학의 학문적 목표는 개인의 본능적인 욕구

12) 上同, 卷40, 「二先粹言」, 「誠則無不敬 未至於誠 則敬然後誠」

13) 『性理大全』 卷37, 「性理9誠」, 「問誠敬二字如何看, 輔廣云, 先敬後誠」

14) 上同, 卷47, 學5, 「存養」, 「南軒張氏曰 誠者天之道 敬者人事之本 敬道之成 則誠而天矣 然則君子之學 始終乎敬者也 人之有是心也」

15) 上同, 「學者用功須當主於一 主者念念守此 而不雜之意 及涵養既熟 此心湛然 自然無二無雜 則不持主而自一矣 不持主而自一 則所謂誠也 敬是人事之本 學者用功之要 至於誠 則達乎天道矣 此又誠敬之分也」

를 극복하고, 행위가 규범을 벗어나지 않게(克己復禮)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통해서 노력하였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의 도달을 위해서 그가 거쳐야 했던 과정은 철저한 수양을 통한 자기 극복(不惑), 천명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그 구현(知天命), 그러한 수양과 실천을 통해서 도달된 마음의 평정(耳順)을 거쳐야 비로소 모든 규범적인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다(從心所欲不踰矩)고 술회하고 있다.¹⁶⁾ 결국 유학은 객관적인 理論知의 탐구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實踐知의 탐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孟子도 이러한 유학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

河西가 자신의 올바른 삶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했던 조선조의 유학은 철저한 자기수양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찾는다는 의미와 함께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窮究한다는 의미에서 성리학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 의로운 도리를 탐구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堯舜孔孟의 道統을 고수하는 정신이 강하다는 점에서 道學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선 중기인 成宗朝에서 中宗朝까지의 성리학자들은 특히 도학의 실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小學』의 律身·修

己의 실천에 주력함으로써 성리학 본래의 위민·민본 정신의 구현을 자신들의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였다.

河西 역시 이러한 실천적인 학문에 뜻을 두고 있었던 까닭에 “방만한 博學은 平凡·質朴한 학문의 담담한 맛보다 못하다.”¹⁷⁾라고 주장한다. 당시에 실천 유학의 學風이었던 『小學』 중심의 유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던河西였기에 그는 학문을 추상적인 개념의 탐구가 아닌 인격의 수련을 통한 인간 완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모든 학문의 목표를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기 수양에 있다고 생각한다.¹⁸⁾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인간 수양을 위한 노력은 끝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학문하는 방법을 ‘흘러가는 물길을 거슬러 배를 짓는 것’에 비유한 詩(吟示景范仲明 其三)¹⁹⁾는 학문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가장 적절히 대변해 주는 詩인 것이다. 흐르는 물에 떠 있는 배는 물길을 거슬러올라가지 못하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흘러가서 제자리마저 찾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河西는 학문 연구와 자기 수양을 굶주린 자가 밥을 먹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 듯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²⁰⁾

2) 世界觀

河西는 程朱 계통의 성리학을 참다운 학문(眞

16) 『論語』「爲政」,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17) 『河西集』, “孝賦次梁兄彥鎮韻”

18) 『河西集』卷7, ‘示仲明’

19) 『河西集』卷10.

20) 위의 詩.

理)으로 신봉하는 까닭에 그의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인 세계관은 성리학적인 그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하서도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실재를 理와 氣로 이해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理와 氣일 뿐이다.”²¹⁾

뿐만 아니라 그는 우주(천지)와 모든 사물은 理氣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실체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理와 氣는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實體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理와 氣는 양자의 속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理는 氣에 비해 恒久性을 갖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²²⁾ 이러한 理에 대한 그의 생각은 氣의 속성과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程朱 계통의 성리학에서는 氣에 대한 理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까닭에 모든 현상적인 다양성은 理가 아닌 氣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런 까닭에 理는 없는 곳이 없고, 항구성을 지니는 데 반해 氣는 사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보편성과 항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理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이므로 그 속성이 同一한 반면 氣는 그러한 동일성이 없고 오히려 다양성 내지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氣는 자체의 질적인 차별성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양태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河西는 이러한 氣의 변화는 그것이 消息·盈虛하는 다양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²³⁾ 그 뿐만 아니라 그는 理에는 明暗·通塞·偏正과 같은 차이가 없지만 氣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通塞의 차이가 있는 것은 氣이고 偏正한 차이가 있는 것은 質이다. 잘 알려진 대로 氣는 구체적으로 음양이고 質은 五行이며, 이들을 통틀어서 氣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하서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이 理에 氣와 같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理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현상계의 존재들이 보이는 다양성 내지는 차별성과는 구별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理는 氣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성리학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理와 氣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理氣不相離’, ‘理氣不相雜’이라고 하는 命題가 그 의미인 것이다. 하서는 이러한 理氣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氣가 존재하는 곳을 理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理만을 가리킬 수는 없다.’²⁴⁾ 氣가 존재하는 곳을 理라고 한다는 말은 理가 氣의 존재 근거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氣와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理를 氣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理만을 가리킬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理가 있는 곳에 氣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곧 河西는 理와 氣는 ‘不相離’의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언급의 또 다른 한 의미

21) 『河西集』 卷12 ‘竊謂天地之間理與氣而已’

22) 同上. ‘理則可常而氣則不可常 理無日亡亦無一毫欠缺而氣有消息盈虛之不齊’

23) 同上.

24) 同上. ‘氣之所在抑可謂之理而亦不可專指乎理也’

는 氣가 있는 곳에 理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理가 자기의 主宰者의 노릇을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원래 理氣는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성리학적인 전제들에 의하면 同時並存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서가 '氣의 존재하는 곳을 理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理만을 가리킬 수는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理가 氣를 주재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성리학에서는 理가 氣를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로 보며 인간의 心性の 경우 惡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아 수양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理氣의 기본적인 관계로 볼 경우 이러한 사고는 사실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理氣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심성이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본다.²⁵⁾

河西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理氣라는 개념을 토대로 체계화한 이기설적인 세계관에 따라 세계의 形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理氣觀을 인간의 다양한 모습 특히 氣質의인 差異와 심성적인 差異를 해명하는 틀로서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자기수양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한 修養을 통한 자기실현을 유학은 이상으로 표방하는 것이다.

3) 人間觀

河西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氣質의 측면에서 뛰어난 특성을 갖지만 그러한 특성도 청탁과 粹駁(純駁)의 質적인 차이를 내포한다는 것이다(『河西集』「大學講義跋」). 그리고 인간은 이 기질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知愚나 賢不肖라고 하는 정신적인 능력의 차이와 함께 규범적인 실천 능력의 차이까지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禽獸와 草木은 氣質이 偏塞하기 때문에 인간의 氣質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곧 하서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초목·금수는 전자가 氣質이 정통한데 반해 후자는 편색하다는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氣質의 차이는 인간과 다른 사물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및 사물과 사물 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금수는 바르지 못한(偏) 氣를 타고난 중에서도 조금은 통할 수 있는 氣를 타고났고, 草木은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힌 氣를 타고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궁극적으로 인륜이라는 규범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생각이다. 인간은 아무리 열등하고 완악한 경우라도 도덕적인 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그러나 다른 사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능이 인간에 방불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동물은 가장 열등한 인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성리학자들의 견해인 것이다.

이러한 기질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분된 인간과 사물과의 차이는 한걸음 더 나가서 인간과 사물의 형태에까지 확대되어 설명된다. 즉 인간

25) 退溪는 互發說을 주장하기 위한 體用說에 의한 '理發'의 合理化 과정이 좋은 實例이다.

은 원형인 하늘을 본받아 머리가 둥글고, 방형인 땅을 본받아 발이 방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를 본받아 인간의 모양은 圓足方하다는 설명과 함께 인간은 기질과 형상의 뛰어난 때문에 平正直立의 자세로 살아간다고까지 주장한다. 반면에 동물과 식물(草木)은 氣質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형상도 인간에 비해 열등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형태도 동물은 하늘을 향한 방향이 아닌 橫生으로, 초목은 인간과 정반대인 逆生(下向)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하서는 다른 성리학자와 마찬가지로 靈長觀의 인간관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氣質을 가진 까닭에 비록 氣質이 濁駁한 어리석은 사람이나 못난(不肖)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氣質을 교정하여 청순한 氣質의 聖賢과 같은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하서의 생각이다. 그는 “비록 堯舜처럼 본성대로는 못하지만 湯武와 같이 수행하면 넉넉함이 있으리라.”²⁶⁾고 한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氣質이 못 미치는 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보면 사람의 기질적인 차이는 사람과 초목·금수의 그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인간은 復性の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이 생각은 그의 인간관의 성리학적인 특성이다.

4. 河西의 誠敬觀

儒學은 본래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는 학문임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런 까닭에 유

학은 그 철학적인 바탕을 인격 완성에 두며 이상적인 인간의 완성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의 탐구를 그 학문적인 목표로 삼는다. 유학의 창시자인 孔子는 인간은 부단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완성된 인간을 군자·현인·성인 등으로 제시하면서 인간 완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그러한 인간의 자기 수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상적인 인간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 유형 곧 소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한 자아의 완성이 이상인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자의 이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맹자는 공자보다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맹자는 인간 완성의 가능성이 인간 자신의 내면에 존재함을 밝히고, 그러한 내면적인 본질로부터 인격 완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인간다움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본성(善性)이라고 규정하고 동물적인 욕구와 다른 이 본성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맹자가 제시한 인간의 본성 속에 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善을 실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맹자의 인성론은 인성에 대한 수양이 필요함도 아울러 강조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그는 養性の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은 善한 기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밝힘과 아울러 그러한 기질을 길러야 선한 본성을 발휘하여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浩然之

26) 『河西集』卷1, 「復性賦」.

氣'와 '夜氣'에 대한 保養論이 그것이다.

맹자의 이러한 修養論은 송대의 성리학자들에 주목되어 그의 성선설과 함께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성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程朱 계통의 理氣·心性說은 바로 맹자 이후 유교적인 수양론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程朱 계통의 居敬·窮理論이 바로 성리학의 수양론의 핵심 이론이다.

程朱 계통의 성리학의 수양설에서는 인간을 理氣의 妙함에 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개인차를 氣質의 차이 곧 氣의 清濁粹駁의 결과로 설명한다. 따라서 성리학은 인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聖인과 일상인과의 차이까지도 氣의 清濁粹駁 곧 氣質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인간의 자기 완성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질의 고르지 못함을 극복하고 기질의 영향권에서 왜곡된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河西는 성리학적인 수양 이론을 계승하여 자신의 誠敬說로 재구성하였다. 그의 인간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서는 인간도 우주자연과 같이 理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타고나는 기질(氣)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기질적 차이는 다른 사물(草木 禽獸)의 경우와 같이 절대

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통한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濁駁한 기질을 교정하여 청순한 기질의 聖賢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河西의 생각이다. 그는 인간은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과 동시에 타자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²⁷⁾ 그는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도 '비록 堯舜처럼 본성대로는 못하지만 湯武와 같이 수행하면 넉넉함이 있으리라.'²⁸⁾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河西는 인간은 학문 탐구 곧 자기수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善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⁹⁾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이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양의 첫째 방안은 유학 본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 誠敬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구체적으로 誠敬의 실천을 통해서 孟子 이래의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수습하는 방법이다.³⁰⁾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신체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마음도 氣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란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 마음은 이기적이고 小我的인 욕구에 의해 그 본래 모습이 은폐될 경우 자신의 내부에 담겨 있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자기 수양은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하서는 본심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敬에서 찾

27) 『河西集』卷2, 「題敬峯上人卷端」.

28) 『河西集』卷1, 「復性賦」.

29) 『河西集』卷7, 「示仲明」.

30) 『河西集』卷7, 「示仲明范」.

는다. 그는 ‘敬이란 思慮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道理이다.’³¹⁾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우리 마음이 敬을 통해서 본 모습을 회복하면 천하의 和平도 이루어짐을 역설한다.³²⁾ 그러나 하서는 인간의 자기 완성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자기 완성 곧 심성의 수양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완성된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규범의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즉 모든 행위를 예법에 맞게 해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본성을 투철히 깨닫고 심성의 수양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실행이 병행되지 못하면 모든 앎도 허식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실천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³³⁾ 하서는 규범적인 자기 완성의 방법으로 居敬·窮理·力行的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아가 완성되면 참다운 삶이 구현된다고 믿었고 그러한 자기 완성을 위해 일생을 두고 노력했다. 또한 그는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敬’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⁴⁾

그러면 敬이 마음을 주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혼란되기 쉽

다. 하서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혼란되기 쉬운 마음을 바로 잡아야 참다운 인간 완성의 길이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흐뜨리지 않는 진실된(敬)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상태인 敬이 마음을 주관(主宰)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마음이 신체를 주관(主宰)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은 침착하여 안정되고 신중한 상태를 유지해야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敬의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敬은 우리 마음을 주재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은 몸을 주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 그 주재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敬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곧 마음이 敬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안정되고 침착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며, 그 때문에 모든 이치를 밝힘으로써 자신(心)과 신체 및 외부 세계의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³⁵⁾

아울러 그는 敬을 ‘聖學의 시작하고 끝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우리가 참다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敬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敬의 상태는 ‘主一無適하고 整齊嚴肅하여 常

31) 『河西集』 卷11, 「與慮稟論夙興夜寐箴解別紙」.

32) 『河西集』 卷?, 「景范次尊諱余又答之 其五」.

33) 『河西集』 卷1, 「孝賦次梁兄彥鎮韻」.

34) 『河西集』 下, 85頁. “心本一身之主宰 非人以爲之主宰然後主宰之也. 惟其氣雜而誘於物 則心馳於外而身便無主 能敬以直之 則心便主宰如前矣”

35) 『河西集』 『策』 下, 162頁. “敬者所以存心而明理也 故自下學之初 以至於爲聖爲賢 未可一日而離乎此”

若對越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확립된다고 강조한다.³⁶⁾

마지막으로 河西는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은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이웃까지를 완성해 주는 단계에 이르러야 함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孔子 이후 유학의 전통인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만물까지를 완성해야 한다는 成物의 이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物我一體觀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천지의 생성까지도 도와야 한다는 『中庸』의 '誠之'의 정신과 통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이상은 '誠敬'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河西는 성리학적인 수양 이념을 계승하여 자신의 이론으로 재구성했으며, 그러한 이론을 철저히 자신의 완성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당대의 제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조선 후기의 문풍을 진작시킨 君主인 正祖로부터 “나는 金河西에 대해서 특별히 경모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사람은 하서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서에 대한 평가는 주로 그의 도학적인 인격과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과 지식인으로서의 인간상에 대한 평가였다면 그의 학문이 당대에서 미친 영향과 성리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의

성리학 관계 문헌이 逸失되고 전해지지 않아 그片만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해도 그의 세계관 및 인간관을 통해서 볼 때 성리학적인 이론에 투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수양론은 그의 인격이 후대의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에 부합되는 道學者다운 면이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과 인간 완성을 일치시켜 나간 도학자로서의 삶은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할 점들이다. 그가 기묘사화에 희생된 사람과 지식인을 복권시키기 위해 상소를 통해서 보여준 용기는 당대의 어느 지식인에 비견될 수 없는 점이다.

어느 시대나 지식인의 현실 고발은 목숨도 버릴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현실의 모순과 불의를 고발하는 데서 보여준 용기는 시대를 초월한 龜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용기가 자신의 인간 완성을 위한 수양의 이론인 '誠敬論'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誠敬論'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서의 사회 개혁과 현실 고발은 모두 자신의 수양된 인격, 곧 安身立命하는 삶에의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볼 때 그의 도학적인 학문관의 토대를 이루는 '誠敬論'은 오늘날과 같은 陋規가 무너진 悖倫적인 사회 현실과 업적주의가 판치는 세대에서 더욱 그 의미가 가중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6) 同上 『附錄』卷1, '家狀'. “敬者聖學之所以成始成終. 而主一無敬. 整齊嚴肅. 常若對越. 則涵養本源. 開發聰明. 在此一字”

유교를 민본 유교로, 국민 유교로 살려나갑시다

정 환 담(광주향교 유교대학장)

1. 古稀에 再立志의 契機

瑞峯 奇世勳 선생님은 저의 대학 시절의 은사 이시면서 또한 저의 선친과 격별한 친고 간이셨습니다. 瑞峯 선생께서는 '90년 초에 高峯學術院을 창립하신 후로 學術院의 研究 論文集「傳統과 現實」을 간행하시면서 저희 모교 全南大法大를 내방하시어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학장의 보직을 맡고 있었으므로 오실 때마다 교수들 및 同窓會의 간부들과 합석하여 영접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恩師님은 저에게 女性團體가 추진하는「戶主制 廢止」를 내용으로 한 民法의 改正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저는 民族 傳統意識의 守護의 입장에서 民族文化 意識의 同質性은 꼭 지켜야 한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특별히 具相鎭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에서, 世宗文化會館에서 열리는 가족법 개정 찬반 토론회에 참여하여 호주제도 보존의 입장에서 여성단체 측의 개정 의견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보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명하시는 뜻은 즉 선생님께서는 여성측의 안을 주장하는 여성계의 대표적인 모태 학교 총장님에게「혼인도 안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가족 문화

를 파괴하려고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꾸지람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화의 분위기가 이미 깨져버렸으니「자네는 낯낯하게 대화할 줄 알 것이니 전통과 유림의 입장을 대변하게」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표 주제가 저의 평소의 지론인데 은사님의 하명을 받들어야 하겠기에 이에 관하여 쟁점을 정성스럽게 연구하여 세종회관에서 발표한 것이 유림 어른들의 취향에 맞았던가 봅니다. 그 날로 바로 성균관과 유도회 총본부, 전국성씨총연합회, 광복회, 근화여성회 등의 전통 수호단체들이 정통 가족법 수호국민연합(正統家族法守護國民聯合, 약칭 正家聯)을 구성하고 그 산하의 연구 기관으로 家族法 研究院을 두고 저를 家族法 研究院長이라는 名譽의 감투(굴레)를 씌워놓고는 家族法 改正 論議에는 항상 具相鎭 변호사와 함께 나아가 싸우게 차출하신 것입니다.

친여성적 가족법 개정 논의는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노리는 야당 측의 치밀한 조직과 기획 아래서 '80년도부터 파상적인 개정 입법의 공격이 있어오다가 '89년도에는 父系(本宗) 中心의 계승 체제를 父系 母系(兩系) 평등의 血族制度로 改正하여 父姓 계승의 원칙을 파괴하였고, 이어서 '97년도에는 同姓同本 禁婚의 원칙, 즉 他姓婚의 원칙을 違憲으로 決定하여

同姓婚을 許容하였고, 마지막으로 戶主制度를 男性中心의 性差別 원칙이라고 하여 兩性 平等에 위반하는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받아서 戶主制를 違憲으로 결정하게 하고, 나아가서 戶主가 있는 戶籍 制度를 위헌이라고 하여 폐지하여서, 戶籍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家族 制度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이 해체된 가족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오늘에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정 가족법에는 인륜에 반하는 내용들의 다수가 내포되어 있었으므로 제가 儒林 어른들께 다니면서 가장 강조하여 왔던 것은 「夫婦(父母)와 그의 子女들을 중심으로 하는 核家族만이라도 살리는 核家族 回復 戶籍 制度의 立法 請願」을 목이 터지게 외쳐왔으나 지금도 유림의 대부분은 戶主制가 폐지되었다고만 알고 있고 家族制度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父母와 子息들을 共同의 戶籍으로 살려야 한다는 戶籍 立法 請願을 준비하자고 설득하고 다녔던 인연으로 저는 大學 퇴임 후 3년 만인 2009년 3월에 광주향교의 儒敎大學長이라는 큰 소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민법(가족법과 재산법)과 한국 법제사를 강의 해왔던 입장을 바꾸어서 유교 대학의 잔무를 담당하면서도 유교 대학의 노장년 학생들과 함께 유학 공부를 초심자로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四書의 예비적 기초로서 다시 小學과 童蒙先習, 明心寶鑑 등을 읽어치우고, 栗谷 先生의 擊蒙要訣을 읽으면서 佛經 中の 元曉 스님의 發心修行章을 읽을 때의 感懷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懸吐 完譯된 四書를 읽으면서, 또한 담당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을 풀어나가는 재

미는 가히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서 후배가 사다가 선물한 신간 白花文의 논어 교재를 읽으면서는 참으로 원전을 읽는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유교 대학생들의 공부반을 모집하여 함께 읽어가니 그분들의 수강하는 모습에 저도 취하여 열심히 수강하는 것을 보면서 공자님 말씀하신 「學不厭而 敎不倦」(工夫하기에 재미를 붙이니 가르치는 데도 또한 재미가 있더라)는 뜻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四書의 基礎만을 수학했던 1年制 유교대학을 2년제로 개편하고 3經(詩, 書, 易經)을 중심으로 하고 韓中 儒學史와 實學 思想, 現代 社會文化 등을 강의함으로서 儒敎 大學生들의 안목은 더욱 넓어지고 工夫 의욕도 커졌으며 수강생 수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또 저에게도 기적 같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퇴임 후에 슬럼프에 빠져서 쇠약해져가던 건강이 더 좋아지고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나이드신 유교대학 학생들과 격의 없는 정담으로 만든 德談이 「古稀에 再立志」라는 말이며, 또한 「健康은 精神力(使命)의 從屬變數다」, 그리고 「動則活이고, 休則虧」(활동하면 살어나고 쉬어버리면 이 지러진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 論, 孟의 敎訓

論語를 읽으면서 몇 가지 책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孔夫子에 대한 존경심과 그 가르침의 깊은 맛에 심취하면서도 저는 자주 의문과 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큰 문제의 하나는 孔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면서도 堯, 舜, 夏, 殷, 周의 遺制와 典據들을 다 정리하였

다고 하여 「述而不作」이라고 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공자의 직접적 간접적 저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춘추 시대를 넘어서 戰國時代에 孟子가 저술한 「孟子」에서는 論語에 서보다도 강렬하게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을 정리·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 2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역대의 왕조는 漢代로부터 唐, 宋代를 거쳐 元, 明, 清代까지도 孔·孟의 敎訓들은 治世의 편의상 「民本」의 名分으로 응용·활용되었으나, 실제로 民本이 實現된 것은 그 훨씬 후의 民의 合議를 통한 主體的 參與가 이루어지던 시대인, 近代 民主主義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民本이 民主가 되는 時代는 君主와 封建 貴族 등의 사회적 身分과 계급이 폐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유교의 발전과정에서 볼때에 성리학은 근본적으로 군자학이지만, 성리학이 민본학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의 동방에 있어서 서양의 시민 혁명이 이전의 과도적 계몽 단계의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 實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학 사상이 군주나 봉건적 계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勤王 사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유학이 전통적 사상과 현대와의 조화라는 難問題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한국유학의 껍질을 벗는 根本 문제

저는 유교와 가족 법제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근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유교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관련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3방면에서 구분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유교의 근본 정신, 근본 원리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하여, 이는 孔·孟의 春秋戰國時代의 根本 精神이라 할 수 있는 「論語」와 「孟子」에 내포되어 있는 초기 유교(先秦 儒學)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漢代 이후 三國時代, 晉, 五胡十六國時代, 宋, 魏, 齊魏, 梁魏, 隋, 唐, 五代十國時代, 遼, 宋, 金·南宋時代, 元, 明, 清時代에 이르기까지 恒常 명분은 民本으로 하면서, 民本을 王帝의 治國의 安定을 위한 王政의 구호이었으나 民本 정치에 民의 根本的인 參與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王朝 時代의 儒敎的 政治의 名分과 그 結果的 實在을 유교가 질 것은 아닙니다.

東西간에 十字軍戰爭 이후에 西洋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新·舊의 기독교 간의 교세 확장의 경쟁 속에서 東西洋이 장벽이 크게 열리면서 西洋의 세력은 舊敎(天主教)의 세계 지배에서 新敎(基督敎)의 세계지배의 경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세계 무역을 통하여 확장되는 重商主義的 사회 세력이 자본주의적 유산 계급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변동시키는 시민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탄생한 서구의 변형된 삼형제라 할 수 있는, 즉 동물적 욕구와 인간적 감정이 결합하여 탄생한 3형태인 자본가(상인)와 선교사(기독교)와 이를 지켜주는 군대의 삼형제는 전근대적 전통에 젖어있는 동방에 시민혁명 정신의 이름으로 계급의 해체와 人間 平等에 기한 民主主義를 수혈하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및 계급 해제의 시대에 들어왔는데도 강력한 계급적 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유교적 전통은 오늘날 어떻게 생존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의견은 유교적 요소를 3분 하여, 첫째로 지킬 것은 간추려서 지켜야하겠는데 그것은 춘추전국 시대에 백성을 살리자는 孔孟의 民本思想(선진 유학)이라고 본 것입니다.

둘째로, 漢代 이후로 淸代末까지의 2千년의 王朝 支配 아래서 忠誠과 服從의 도구로 이용되어왔던 御用 儒敎는 오늘의 儒敎가 책임을 부담할 儒敎가 아니므로 이는 과감하게 排擊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흡사히 구주의 기독교가 교권과 절대 군주의 지배의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왕권이 끝나면 로마 교회는 왕권의 책임에서 면책되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셋째로, 그 동안에 국민들 상호 간에 유교의 미풍 양속으로 존중되어왔던 禮俗들은 현대적 민본주의, 민주주의와 조화롭게 연구 수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교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유교의 전통적 제도와 조직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투철한 식견과 과감한 개혁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거개가 아직도 절대 군주나 봉건 왕조 시대와 계급 사회의 윤리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유교적 제도와 교훈들은 오늘날 반드시 현대적으로 오늘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고 방식과 실천 행동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언하면 현대 유교는 대

한민국의 헌법과 조화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溫故而知新」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溫故만을 강조하여 知新은 물론 溫故조차 더욱 어렵게 하여 難解한 溫故의 경쟁 속에서 자기의 有識性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현대적 응용의 방안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생각하여보면 우리 유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放漫했는지 반성해볼 일입니다. 基督教과 佛敎는 敎會 몇 개만 있어도 神學大學을 세우고 절 몇 채만 있어도 僧伽大學을 세우고 있는데, 千年이 넘는 儒敎는 日帝가 彈壓하고 美軍政 때 彈壓하고 폐지했던 결과대로 지금도 成均館은 있고 鄉校들은 전국에 수백 개가 있으면서도 그 산하에 정식으로 유교대학 같은 교육 기관이 하나도 없고 교육방송국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하에서 일본 신사당에 빼앗긴 향교의 땅들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거대한 儒敎적 조직이 그 넓은 국토 공간에 광범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학다운 교육기관 하나도 못 세우면서 쉬운 미봉책으로 예절교육 연수원이나 노인 대학들을 만들면서, 유용한 정규적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발분하여 인재를 기르고 제도를 세우고 책을 찍어내고 쉽게 저술·번역하여 한 자에의 구속에서 조금 쉽게 벗어나고, 젊고 어린 인력의 후세를 품어야 합니다. 한글 논어, 한글 맹자도 쉽게 풀어 찍어내야 합니다. 또한 유럽도 양반의 틀을 벗어나 평민의 속에 뛰어들어야만 국민은 유교가 바로 우리 것임을 알 것입니다.

9월 9일에 河西 先生 秋享祭

초헌관에 심우영 전 장관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고암 양자징 선생을 기리는 추향제가 9월 9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 날 추향제에는 김양수 장성군수, 김상복 장성군의회 의장, 오인균 산양회장, 황서주 대전 문충사 원장, 유재우 경남 유림 대표, 정남호 광주향교 전교, 정운엽 전북향교 고문, 김종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용 장성향교 전교, 김달수 대종회장, 김인수 문정공파 도유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봉진례, 전폐례, 초헌례 순서로 제례 행사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심우영 전 총무처 장관이 초헌관을, 황서주 대전 문충 사원장이 아헌관을, 오인균 산양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헌작하였다.

陳設에 崔淳桓(전주), 집례에 河載禹(경남 합천), 大祝에 曹校煥(서울) 유림이 수고하였다.

초헌관을 맡았던 심우영 전 총무처 장관은 추향제를 마친 뒤 청절당에서 「하서의 시대와 사상」을 주제로 강론했다. 심 전 장관은 “하서 선생은 기묘 · 을사사화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임금에게 직언을 하여 절의를 지켰다”며, “하서 선생은 유학의 이념을 현실에 잘 접목시킨 학자이자 문장가”라고 강론했다.

河西 선생의 탐구정신 계승하는 제1회 탐방 체험 한글 백일장 열려

추향제와 함께 河西 선생을 기리는 탐방 체험 백일장 시상식이 지난 9월 9일 필암서원에서

있었다. 자연을 탐구하여 그 속에서 깊은 철학적 담론을 이끌어내었던 河西 선생의 탐구 정신을 계승하고자 자연과 문화를 관찰 탐방하고 그것을 소재로 글을 쓰는 탐방 체험 한글 백일장이 장성군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박수량 묘소 백비, 필암서원, 소쇄원, 순창 훈몽재, 순창 낙덕정, 영광 불교도 래지, 河西 선생 묘소, 난산 통곡대, 민씨 할머니 묘소, 국립박물관 등 장성과 그 인근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여 체험하고 글을 짓도록 하였다.

탐방체험 한글 백일장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인수 문정공파 도유사는 그동안 유림 중심으로 실시했던 한시 백일장을 올해부터 청소년 중심의 한글 백일장으로 현대 교육에 맞게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금상을 수상한 약수초등학교 황현지 양은 <河西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글을 河西 선생영전에 봉독했다. 입상자들의 글을 모아 <한글백일장-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집을 간행하여 나누어 주었다.

필암서원 集成館 운영 출범식

장성군, 大東文化財團과 위탁 협약 체결
다양한 문화 사업 추진 기대돼

장성군은 7월 25일 大東文化財團과 필암서원 집성관 위탁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장성군은 이 고장 청소년과 전국 유림들의 교육장인 필암서원 집성관을 광주 · 전남의 대표

적인 문화예술 단체인 대동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사업 추진과 문화관광 사업, 각종 교육 활성화에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필암서원 집성관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양수 장성군수,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이사장, 김상복 장성군의회의장, 윤사석 전남도의원, 고권석 문화관광과장, 오인균 산양회장, 김인수 도유사, 임우진 대동문화 집행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뒷풀이로 풍물패 길놀이, 김산옥 명창의 축하 공연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동문화재단은 2014년까지 집성관을 운영하게 되며, 전국 초·중·고 대학과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장성군과 대동문화재단은 매년 장성군민을 위한 공익적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장성군민과 출향 인사, 사회적 약자에게 집성관 이용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선현들의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고 고품격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건립한 집성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각종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성의 문화관광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었다.

조상열 대표는 “河西 선생을 모신 필암 서원과 집성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장이자 정신문화 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재 生生사업 장성 속에 노닐다



지역의 문화재를 따뜻한 손길로 깨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시간 속에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문화재 생생 사업’이 활발하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문화단체들이 함께 펼치고 있는 이 사업은 문화재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이다.

대동문화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장성군과 함께 ‘문불여 무불여 장성 속에 노닐다’라는 생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불여장성(文不婁長成)은 예부터 학문의 고장 장성을 일컫는 말이며,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개발했던 망암 변이중 선생은 ‘무불여 장성’의 새로운 의미로 조명을 받고 있다. ‘장성 속에 노닐다’는 장성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모두 세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불여 무불여 장성에서 1박 2일’은 하서 김인후 선생이 인종의 스승이었던 것을 재현한 조선의 왕세자 교육 체험. 문무의 겸비,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리 등을 익혀볼 수 있는 세자시강원, 예절 교육, 활쏘기, 투호 등을 체험하고 박수량 백비, 봉암서원 등을 답사 하는 내용이다.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약 2백 여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하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동문화재단은 장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필암서원 수련관 집성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 '마실 가는 길'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 음식 만들기, 예절 배우기 체험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담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장성의 문화재를 직접 찾아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우리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대동문화재단과 장성군은 올해 진행된 문화재 생생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2012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문화관광과 고은미 061-390-7553

장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하서대로(河西大路)

새주소 사업 조기 정착에 앞장서온 장성군은 하서로, 봉암로, 노사로 등 역사성 있는 도로명 10개소에 표지석을 설치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장성의 역사성 있는 인물과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河西大路는 장성군 남면 삼태리(광주시와 경계)에서 장성을 덕진리에 이르는 국도 1호선의 도로명이다.

장성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하서대로는 장성이 선비의 고장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한 「하서로」와 함께 河西 선생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도로명이다.

장성 아카데미

필암서원 集成館에서 열린다

지난 3월 24일 2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을 자랑하는 장성아카데미가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개최되었다. 장성군 공무원과 군민들이 다수 참석한 이날 한민족 예절학교 김봉곤 훈장이 <김봉곤 훈장의 고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집성관에서 이 같은 대중 강연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비학당 儒生 이낙연 의원과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 방문

지난 10월 28일 선비학당 유생 28명은 이낙연 의원과 김황식 국무총리의 초청을 받아 국회를 방문하여 견학하고 오찬 후에 총리 공관을 방문하였다. 유생들은 유익한 견학을 즐거워하고 흐뭇해했다.

河西 탄생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하서 김인후의 도학 사상과 현대 문명」 발간

2010년 하서 김인후 탄생 5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던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를 정리한 논문집이 장성군과 장성문화원의 후원으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되었다. 河西 선생의 도학사상의 본領과 고결한 삶의 자취를 국제적으로 조명, 선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장성군청과 성균관 대학교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국내외 16편의 논문을 실어 하서 사상 연구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백승중 박사, 〈조광조와 김인후, 이상 세계를 현실로 가져오다〉 집필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라는 하서 평전을 써서 독자들의 좋은 평을 받았던 백승중 박사가 네 분의 교수와 함께 「조선의 통치철학」을 내놓았다.

백승중 박사는 〈조광조와 김인후, 이상 세계를 현실로 가져오다〉를 집필하였는데 “16세기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역사의 수면 위로 부상했다. 조광조가 제시한 통치 철학은 ‘요순 시대를 현세에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몰락은 왕도정치의 구현이 불가능한 조선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성리학적 이상정치가 실종된 다음 한

동안 속물정치 가 조선을 지배했다. 이에 김인후는 분연히 일어나 조광조의 복권 운동으로 성리학적 이상주의 부활을 선도했다. 많은 선후배 학자들이 이 운동을 지지함으로써 17세기 조선 사회에는 다시금 성리학적 이상주의가 팽배했다. 동시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조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로 재구성되었다. 결국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東江 柳漢相 先生 吊問

본회 고문이시며 필암서원 道執綱이신 東江 柳漢相 선생이 11월 5일 別世하시어 11월 8일에 본회 吳仁均 회장, 金梓洙 부회장, 박래호 총무, 金寅洙 文正公派 도유사가 靈筵을 찾아 조문하고 祭文을 奉讀하였다. 100세를 누리신 東江 柳漢相 선생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선비의 표상으로 유림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총무 朴來鎬 동정

본회 박래호 총무는 8월 12일 정읍문화원 주최 전국 한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0월 22일 大田市 남간사가 주최한 우암 宋時烈 선생 추모 문화 축전 전국 한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한 경주문화엑스포센터의 〈한국의 魂을 宗家에서 찾다〉에 참여하였다. 또한 11일에는 전북 정읍 북면에 있는 一齋 李恒 선생을 모신 南臯書院의 남

고학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유림 대표로 축사를 하였다.

박래호 필암서원 학장 거창서 강연

2011년 12월 05일(월)

박래호 장성 필암서원 선비학당 학장이 6일 오전 10시 경남 거창읍 거창향교 충효회관 대강당에서 초청강 연회를 갖는다. 박 학장은 이날 거창군민과 유생들을 상대로 '예의생활 실천과 윤리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泰仁鄉校 儒林 80명

필암서원 奉審

11월 5일 태인향교 李元宰 儒道會長 尹京喆 외 80명이 필암서원 祐東祠를 봉심하고 집강 朴來鎬가 河西 선생의 道學·節義와 서원의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百花亭’ 補修로 後學들의

學習 場所 提供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은 하서 김인후 선생이 태어났던 곳으로 경내에 그가 거처하던 백화정(百花亭)이 있다. 백화정은 1552년 (명종 7)경 건립되었으며 임진왜란으로 소실, 손자 김남중(金南重)이 중건하였으나 한국

전쟁 때 소실되었다. 1961년 후손 수당 김연수가 복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지붕, 3칸 대문과 담장으로 중건하였다.

하서 김인후는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거처하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힘썼다. 1556년 서경덕의 학문이 하학(下學)을 소홀히 하고 돈오(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1557년에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을 일물(一物)로 보는 이항(李恒)의 설에 반대하고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등을 저술하였으며, 노수신(盧守愼)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비판하여 이항과 기대승이 노수신의 설을 반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하서 김인후 선생의 성리학 체계를 이곳에서 완성하였다.

생가의 바깥 사랑채를 백화정이라 하는데 이번에 하서의 후손이며 김연수 장손자인 김병휘 가족이 전면 이를 보수하여 후학들이 이곳에 머무르며 하서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휴식을 취하며 글 쓰는 장소로 제공하였다

하서 추모 한글 백일장 시상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중과 필암서원 백일장 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9일 필암서원 추향제를 봉행한 후 금년도 백일장 수상자를 발표하고 금상을 수상한 장성 약수초등학교 6학년 황현지 학생이 수상작 ‘하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을 하서 선생 영전에 봉독하였다

금 상 - 500,000원

하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황현지(장성 약수초등학교 6학년)

은 상 - 300,000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얼을 본받고자
 최두원(장성 월평초등학교 5학년)
 동 상 - 200,000원
 하서 김인후 선생님 존경해요
 심다희(장성 사창초등학교 5학년)
 장려상 - 50,000원(37명)
 김명은 외 36

전남대 김기현 교수 하계 학술강연

7월 6일 필암서원 集成館에서

지난 7월 6일 27차 산양회 하계 학술강연회가 회원과 이 고장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렸다. 이 날 연사로 초청된 전남대 윤리교육과 김기현교수는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강연원고는 산양회보 17집에 참조바람)

이 날 강연회에는 송준빈 본회 부회장, 이영복 본회 고문, 김인수 문정공파 도유사, 정남호 광주향교 전교, 이상용 장성향교 전교, 보성향교 전교, 김봉곤 순천대교수, 김양수 장성군수, 이재영 장성군 산림조합장, 고창 고전연구회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金兩洙 장성군수는 축사에서 “산양회가 매년 의미 있는 학술 대회를 이어오고 있음에 존경을 표합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하서 선조와 박수량 선생의 자랑스런 정신을 본받고자 합니다. 작년에 집성관이 완공된 후 체계적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집성관 운영 주체를 대동문화재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군의 공무원들

이 청백리의 표상인 朴守良 선생의 백비를 참배 하였습니다. 이곳을 공무원 교육의 필수 코스에 넣도록 전남도에 건의했습니다.” 고 말했다.

김기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림이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고, 중국은 유교 문화가 다 없어져버렸고, 일본은 조금 있지만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박정희, 김대중, 이명박, 정주영 등 현대 한국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 머리를 꺼낸 후 ① 자연 본성의 긍정 문제 ② 과학지식의 포용 문제 ③ 다원화사회에의 적응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김기현 교수는 유교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時中の 원리에 따라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유교는 죽은 유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지평 안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작용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李宰榮 장성군 산림조합장

金寅洙 문정공파 유사가 축하 화환 보내주심

본회 「社團法人 筆巖書院 山仰會」로 인허받음

본회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사단법인화가 10월 17일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인허를 받아 11월 1일 등기를 마쳤다.

山仰會로 출범한 지 10년만에 社團法人으로 새출발하게 됨으로써 본회의 활동을 더욱 확고하게 펼 수 있게 되었다.

이사장에는 오인균, 이사는 김인수, 정채호, 정환담, 장원명(원석), 김재수, 박래호, 김병국, 양희택, 이충원 회원, 감사에는 김장수, 김종환 회원이 등록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는 409-82-16699이다.

2011년 정기총회준비를 위한 임원회의 산양회 사단법인 등기 완료 보고 받음

2011년도 정기총회 준비 및 산양회보 18집 편집을 위한 임원회의가 지난 11월 7일 16시 예원식당에서 열렸다. 오인균 회장을 비롯하여 윤장현, 정채호, 김재수 부회장, 박래호, 양희택, 김장수, 이충원, 그리고 김인수 도유사가 참석하였다.

10월 17일 전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산양회 사단법인 인허를 받아 11월 1일에 법인 등기를 마쳤음을 박래호 총무로부터 보고 받고 앞으로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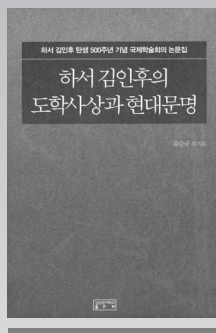
양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김재수 상임부회장 사회로 2011년 정기총회 및 산양회보 18집 발간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1년 정기 총회는 12월 20일(화)에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기로 하고 초청인사로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李愛熙 교수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산양회보 18집 편집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양회 임원회의

지난 7월 11일 17시 예원식당에서 하계 강연회를 잘 마친 것을 치하하고 社團法人 인허에 필요한 서류를 수합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열었다. 박래호 총무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인균 회장, 장원석, 정채호, 정환담, 김재수, 김장수, 박래호, 김종환 씨가 참석하였다. 식사를 정환담 부회장이 대접하였다.



하서 김인후 탄생 50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하서 김인후의 도학사상과 현대문명
류승국 외 지음

하서 김인후 탄생 5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하서 선생의 도학 본령과 고결한 삶 조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入會를 환영합니다

경기도	金吉萬	30,000	光州	丁南鎬	40,000
光州	盧南善	30,000	전남대	김기현	30,000
光州	盧云燮	30,000	光州	양철승	30,000
光州	劉乙烈	30,000	고창군	한봉기	30,000
光州	金永哲	30,000	담양	林魯德	30,000
光州	丁彩鎬	40,000	보성	安鍾德	30,000
光州	林丙告	50,000	장성	金榮日	30,000
光州	鄭煥淡	30,000	장성	康隆一	30,000
光州	金相允	30,000	장성	吳昌均	30,000
光州	金炳國	30,000	장성	李正仁	30,000
光州	金相敦	30,000			

特別會費 誠金內譯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주)삼양사(광고비)	2,000,000원
전남도 문예기념	2,000,000원
도유사 金寅洙	300,000원
서울 邊瑞燮	100,000원
광주 崔相玉 회장	100,000원
전남대 김기현 교수	100,000원
전북 고창 辛桂元	100,000원
거창군 朴東福	100,000원
광주 尹漳鉉 본회부회장	100,000원
문정공파종중	200,000원
총무 朴來鎬	100,000원
재무 梁熙澤	100,000원
장성 金炳國	100,000원
부회장 김재수	200,000원

화환 기증자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달수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김인수
하서학술재단 이사장 김상하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광주향교 전교 정남호	장성종친회장 김 광
밀등회장 김용대	그레이스 회원 사장 김동원

2011年 9.9(陰曆 10.5)

筆巖書院 春享祭 獻誠金 內譯

順番	獻誠金 內譯	金額
1	김 완 (북하면 본손)	300,000
2	조교환 (서울시 서초구)	100,000
3	황서주 (아현관)	50,000
4	김인수 (도유사 본손)	500,000
5	김상원 (총무유사 본손)	100,000
6	동원사원 (대구광역시)	100,000
7	김병국 (별유사 본손)	100,000
8	김상현 (부도유사 본손)	100,000
9	김상돈 (부도유사 본손)	100,000
10	백일장 (백일장위원회)	1,480,000
11	김달수 (대종회장)	1,000,000
12	하재우 (경남 합천군)	50,000
13	오인균 (산양회 회장)	500,000
14	공영갑 (남면 녹진리)	30,000
15	김경수 (북구 용봉동 본손)	100,000
16	김재수 (재향군인회 지부장)	50,000
17	이권한 (장성향교 유도회장)	30,000
18	박광호 (농협 장성지부장)	100,000
19	김종욱 (장성군 교육장)	100,000
20	김점수 (장성군 교육청)	50,000
21	변동혁 (장성읍 장안리)	50,000
22	김영풍 (장성문화원장)	300,000
23	차장근 (장성 축협조합장)	50,000
24	김상언 (광주 상무동)	100,000
25	이재근 (장성 노인회장)	50,000
26	공병철 (북구 중흥1동)	30,000
27	이흥주 (광주 운암동)	30,000
28	정환담 (향교유교대학장)	100,000
29	김형균 (광주국세청장)	200,000
30	오광교 (광산구 명도동)	50,000
31	이병하 (광주 운암동)	50,000
32	반옥진 (장성고등학교 교장)	50,000
33	김재수 (산양회 부회장)	50,000
34	김창수 (계파도유사)	100,000
35	김용대 (광주종친회장)	50,000
36	김관중 (사정공 도유사)	100,000
37	김관중 (문정회 회장)	100,000
38	신준호 (필암사원 집성관)	100,000
39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이사장)	50,000
40	김성수 (전 장성축협장)	100,000
41	김상술 (회암공회장)	100,000
42	김상준 (밀등회 전회장)	100,000
獻誠金 合計		6,580,000

— 알 림 —

본 회 2011년 정기총회 및 28차 학술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요일) 10 : 3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
- 주 제 :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李愛熙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2. 원고 모집 안내

- ① 河西 선생과 교유한 人物 ② 河西 선생에 관한 새 자료 ③ 山仰會에 대한 제언 및 건의
- 보내실 곳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4~28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새 주소록 변경 안내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 변경된 전화번호도 꼭 적어 주십시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성 농협 (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6712-8881 박래호)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姓名 :	本貫 :	雅號 :	生年月日 :
住所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現職 :	學歷 및 經歷 :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 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福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 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가 강연함.
- 2003. 9.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함.
- 2003. 12. 17일 산양회 정기 총회, 安晉福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 사임하고 새 회장에 朴鍾達, 새 총무에 孔鍊雄 선임.
“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함.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추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윤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의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 (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